

은혜 깊은 까치

AI 시대의 새로운 전설



Bin nanson Ep-2251
Data link: active

Micro-LED path

The Dreyfus Magpie has
improved its ability to
communicate with other
magpies. It has learned to
use percentages.

Network: 5G 6G ready

AI도움받아 장성재 씀

작가프로필

변화한 도시를 떠나 아름다운 부안의 품
에 안겨 글을 쓰고 있는 초보작가 입니
다.가장 좋아하는 연두색처럼 싱그럽고,
가을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짓습니
다. 글을 쓰지 않는 시간에는 마음에 평
온을 주는 그림도 그리며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채워갑니다. 부안의 평화로운 풍
경을 닮은,다정하고 편안한 이야기로 독
자들의 마음에 심표를 전하고자 합니다.



26년7월, 기획 *Chang*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듯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첨단 농업 드론이 날아다니고 황금빛 배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는 미래의 스마트 한옥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스마트 지팡이를 짚고 시스템을 돌보는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지요. 할아버지는 주렁주렁 열린 배를 보며 흐뭇하게 외치셨어요.

"아따, 잘 영글었네! 아따 오동지네! 올해 배 농사도 참말로 재미지네잉!"

영글었네 / 오동지네: 열매가 잘 익고 실하게 굵어졌다는 뜻이에요.
재미지네: 깊은 맛이 나며 최고로 맛있다는 전라도 방언이에요.



마을 번두리 고목나무 위에는 조그만 'AI 까치 드론'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드론들은 마을의 기후를 관찰하는 착한 로봇들이었지요. 평화로운 어느
날, 날씨를 점검하던 아기 까치 드론들이 반갑게 웅웅거리며 신호를 보냈어
요.

"안녕들 하나? 날씨가 참 괜찮해, 암씨랑도 얹어!"

괜찮해 / 암씨랑도 얹어: 모두 다 괜찮고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바이러스 구렁이 프로그램 '스네이크-X'가 나타나 아기 까치 드론들의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어요! 구렁이는 동지를 칭칭 감으며 빨간 눈을 번뜩였고, 깜짝 놀란 작은 드론들이 에러를 일으키며 추락하려 하자 쏫소리로 위협했지요.

"크크크, 맨날 맥없이 있더만 잘 걸렸다! 싹 다 망가뜨려 주마!"

맥없이 / 있더만: 기운 없이 멍하니 있더니만 잘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나타나 스마트 지팡이로 강력한 보안 백신을 쏘아 구렁이를 멀리 쫓아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바이러스에 걸려 비틀거리는 엄마 까치

드론을 정성껏 치료해 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지요.

"아이고, 새 빠지것네! 아따 달게 마셔라. 그래,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정신을 차린 엄마 까치 드론은 할아버지를 향해 고맙다는 듯 날갯짓을 하며 삐릿삐릿 신호를 보냈어요.

"가슴이 찡하요... 할아버지, 이 은혜는 거시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꼭 갚아블라요!"

새 빠지것네: 아주 힘들었겠구나 하며 위로하는 말이에요.

거시기 / 갚아블라요: 마땅한 말이 안 떠오를 때 쓰는 말과 '꼭 갚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며칠 후, 복수를 위해 더 강력해진 바이러스 구렁이가 밤을 틈타 스마트 타워를 장악하고 할아버지를 디지털 감옥에 꼼꼼 가둬버렸어요. 타워 시스템

창에는 할아버지의 다급한 메시지가 붉게 떴지요.

"이럴수가, 아이고 삭신이 쏘셔! 바이러스 요놈이 나를 가둬부렸다!"

구렁이는 타워 제어권을 쥐고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다시 해봐! 짜 낸다! 넌 절대 여기서 못 나간다!"

삭신이 쏘셔: 온몸의 마디마디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짜 낸다: 엄살 부린다, 허풍 떠난다는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 신호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 까치 드론은 망설임 없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타워 꼭대기에 있는 '시스템 리셋 종'을 올려야만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종은 단단한 디지털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요. 까치 드론은 타워 주변을 뱅뱅 돌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글세~ 잠겨부렸네. 금매... 뭐 댄시 그리야? 어떻게 종을 깨우지?"

금매: '그러게 말이야' 하고 맞장구치는 부안의 대표 사투리예요.

뭐 댄시 그리야: '이제 어찌면 종단 말이나' 하는 걱정스러운 탄식이에요.



종을 깨우기 위해서는 마을의 자연 소리로 만든 암호를 외쳐야 했어요. 까치 드론은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로 높이고, 온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해 암호 주문을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바람의 힘이며, 소아 - 쉬악~! 천둥이며, 우르릉 쿵쿵! 어서 종을 깨워라잉!"
주문이 성공하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며, 굳게 잠겼던 종이 파란 빛을 내며 번쩍 깨어났어요.

깨워라잉: 말끝에 '~잉'을 붙여 친근함과 간절함을 더하는 부연 설명식 전라도 표현이에요.



종에 불은 들어왔지만, 구렁이가 설치한 방어막 때문에 종 주변에는 지지직
거리며 위험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부딪히면 회로가 타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까치 드론은 은혜를 갚기 위해 엔진을 세게 켜
며 다짐했어요.

"진게, 그의 다 왔어. 내 몸이 부서져도 할아버지는 꼭 구해낼 거여!"

진게 / 그의: '이제사(드디어)', '거의'의 사투리 발음이에요.



까치 드론은 날개를 꺾고 종을 향해 번개처럼 돌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부딪쳐 종을 쿵! 쿵! 쿵! 세 번 울렸습니다. 웅장한 종소리와 함께 거대한 백신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고, 깜짝 놀란 바이러스 구렁이는 비명을 지르며 지워졌어요.

"에이치! 이럴수가, 완전히 당해부렸네!"

당해부렸네: 억울하게 당해버렸다는 뜻의 사투리예요.



구렁이는 소멸했고 할아버지는 무사히 구출되셨어요. 할아버지는 온몸이 부서진 채 떨어진 까치 드론을 안아 들고 눈물을 흘리셨지요. 할아버지는 마을의 최고의 AI 기술로 까치 드론을 반짝이는 '황금빛 수호신 드론'으로 다시 고쳐주셨어요. 다시 눈을 뜬 까치 드론이 기쁘게 뽐뽐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따, 재미지네!"

두 사람은 정겨운 스마트 한옥마을을 지키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거예요?: '것인가요?'를 묻는 정겨운 사투리 어조예요.

재미지네: 여기서는 '진짜 최고다', '아주 아주 좋다'라는 감격의 표현으로 쓰였어요.

